

중국, 청정에너지 생산 세계 1위

인민일보, 2010년 생산액 640억달러 ... 풍력·태양에너지 투자 급증

중국은 2010년 원자력, 풍력, 태양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생산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세계자연기금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청정에너지 생산액이 2010년 640억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했다.

청정에너지는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태양에너지, 풍력, 생물에너지, 수력발전, 원자력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2010년 청정에너지 발전용량이 원자력 1080만kW, 풍력 3170만kW, 생물에너지 550만kW, 태양에너지 70만kW 등이었다.

미국 퓨자선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청정에너지 투자가 2009년 이미 미국을 넘어섰고 2010년 544억 달러로 전년대비 39% 급증해, 2년째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국은 2010년 풍력과 태양에너지 산업의 투자 증가율이 50%에 육박했다.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청정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핵심기술을 확보한 대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25>